



△제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08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오는 5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등 12 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모습.

제주 사회복지인 대화합의 장

5일 학생문화원서 '제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제주 사회복지인의 대화합과 협력의 장인 '제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08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오는 5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김태환 지사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단체 근무자 및 생활(이용)인, 관계공무원, 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리며, 1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댄스포츠팀의 '휠체어댄스' 등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유공자와 사회복지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시상,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수상자 명단 2면

2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생활(이용)인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마련된다. 제주애덕의집과 제주케어하우스 등 13개

팀이 나서 열띤 경연을 벌인다.

대상 1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 200만원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각 1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 100만원, 70만원이 주어진다.

다채로운 사회복지주간행사도 마련됐다.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련 조례분석 및 개선방향' 등을 주제로 '제3회 희망제주 복지포럼'



이 열린다. 19일에는 윤석용 국회의원을 초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오는 27일과 28일에는 우도(소섬)를 방문해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물품지원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12월부터 모든 임신부에 산전진찰비 20만원지원

오는 12월부터 임신부에게 산전 진찰비 2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음파검사와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전자바우처(e-바우처)로 모든 임신부에게 20만원씩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전 진찰에 드는 비용을 전자바우처(e-바우처)로 제공하면 초음파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임신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진료·검사 비용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를 갖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8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내년도최저생계비 인상
시설탈방·일배출
- 사회복지소식 4·5면
장애극복상 수상자 인터뷰·소식마당
푸드뱅크·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노인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사회복지주간행사 안내

제3회 희망제주 복지포럼

- 일시 : 2008. 9. 12(금) 14:00 ~ 17:00
- 장소 :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 특별강연

- 일시 : 2008. 9. 19(금) 15:00 ~ 17:00
- 장소 :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도서지역봉사활동 '소섬, 수놓음나들이'

- 일시 : 2008. 9. 27(토) ~ 2008. 9. 28(일)
- 우도 거주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무료진료, 후원물품 제공

Happy Jeju

나눔과 실천으로 따뜻한 제주를!

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2만6609원

올해보다 4.8% 인상...장애수당 선정기준 등에 활용

4인가구 현금급여기준도 4만5862원 오른 110만5488원

2009년도 월 최저생계비

구분	최저생계비	인상률
1인 가구	490,845	6.0
2인 가구	835,763	6.6
3인 가구	1,081,186	5.3
4인 가구	1,326,609	4.8
5인 가구	1,572,031	5.7
6인 가구	1,817,454	6.2

위해 3년마다 국민생활수준조사(이하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계측조사를 실시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는 통상적으로 예상물가상승률 3% 수준을 반영·인상했으나, 올해 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 최저생계비의 실질수준이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에 올해 물가상승분 1.8%를 추가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급여액의 명목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생계비는 내년 영유아 보육사업의 선정기준, 장애수당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6.2% 오른 181만7454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현금급여기준도 4인 가구 기준 110만5488원으로 올해보다 4만5862원 올랐다. 1인 가구는 40만5881원, 2인 가구는 69만4607원, 3인 가구는 90만48원, 5인 가구는 131만928원, 6인 가구는 151만6369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4인 가구일 경우 110만5000원에서 50만원을 뺀 60만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결정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 126만5848원보다 4.8% 오른 132만6609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09년도 최저 생계비를 1~6인 가구별로 올해보다 4.8~6.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선 4인 가구 기준금액의 인상률을 정한 뒤 이 금액에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를 곱하여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6.0% 인상된 49만845원, 2인 가구는 6.6% 오른 83만5763원, 3인 가구는 5.3% 오른 108만1186원, 5인 가구는 5.7% 인상된 157만2031원, 6인 가



“모유로 건강하게 키우세요” 제10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가 대한간호협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회장 남상옥) 주관으로 8월 27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렸다.

무장애도시 건설 위한 '장애인 인권영상 상영회'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장애도시 건설을 위한 무장애운동의 일환으로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와 함께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영상 순회상영회'를 개최한다.

순회상영회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8월 30일

성산중학교를 시작으로 서귀포 동문로터리광장,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한라초등학교 등 11월까지 이어진다.

또 2차 신청접수를 받아 총 15회에 걸쳐 순회상영회를 갖고, 12월에는 사업평가 및 영상보고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환자에 간병비 지원

서귀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무연고 중증질환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중증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기준은 주간 8시간 간병시 3만원, 야간 12시간 간병시 4만원, 24시간 간병시 7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간은 한 달이내, 지원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간병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홍익아동센터, 대통령 표창

홍익아동복지센터(원장 김순실)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1951년 전쟁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문을 연 홍익아동복지센터는 반세기가 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심리치료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자립프로그램과 음악치료, 도서관 개방사업 등 시설아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동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온 공을 인정받아 오는 5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1급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전국 최초' 개원

창암교육활동센터, 애월읍 광령리서 본격 운영

1급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주간보호시설이 전국 최초로 제주시애월읍에 문을 열어 장애인의 재활치료는 물론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시애월읍에 따르면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 부설 '창암교육활동센터'가 8월 23일 애월읍 광령1리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전액 제주시가 지원하며, 입소대상자는 재가장

애인 중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활동이 불가능한 1급 중증장애인이다.

입소 인원은 17명이며, 간호사와 재활치료사 등 6명의 전문종사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보며 장애유형에 알맞은 재활치료가 병행된다. 시설과 가정을 오가는 수송도 시설측이 담당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이 같은 1급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사



업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그동안 중증 재가장애인을 보호하던 가족들이 낮시간에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재활치료가 가능해져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명을 '미래찾기 도의 나들이'란 프로그램으로 서울로 초청, 문화관광행사 지원을 계기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인연을 맺었다.

'행동하는 양심' 제주서 자원봉사 '구슬땀'

서울에 위치한 자원봉사단체인 '행동하는 양심' (대표 문관식) 회원들이 섬마을 일손돕기 프로그램으로 8월 4일 제주를 방문,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희경)과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벌였다.〈사진〉 '행동하는 양심' 회원들은 8월 5일과 6일 폐비닐 수거 및 해안가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

화활동과 혼자 사는 노인 집을 찾아가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했다. 7일에는 우도에서 해안가 정화활동과 도배봉사 등을 펼쳤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항공료 등 모든 경비를 각개인이 부담했다.

'행동하는 양심'은 지난 1월 구좌읍 지역 저소득층 어린이

사회복지 유공자 명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고경윤(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김현수(제주시 사회복지과) △제주애덕의집(시설평가부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임효정(아가의집) △곽광석(제주시 일도2동 장애인지원협의회) △이영란(제주영송학교) △강희정(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김연심(제주종합사회복지관) △오신미(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현경애(제주케어하우스) △박주희(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정연(제주시립희망원) △이창훈(길직업재활센터) △유진우(제주원광전문요양원) △김순미(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표창 △양은나(제주정신재활센터) △양정옥(성이시돌요양원) △김태진(제주장애인요양원) △허세정(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임윤정(제일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표창 △양미성(세화중학교) △양연숙(제주시교육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공로상 △홍관익(제주시 사회복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봉사상 △김홍철(온누리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표창 △정경미(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고승갑(서찬문축산) △새제주적십자봉사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4회 지적장애인의 날서 장애극복상 수상한 양민규씨

‘지적장애인의 날’(7월 4일)은 지적장애인의 올바른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권익향상을 위해 2005년 지적장애인의 권리선언의 이념을 바탕으로 제정됐다. 올해 제4회 지적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극복상’을 수상한 양민규(35)씨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씩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민규씨는 어릴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고열 등으로 인해 언어장애를 중복으로 갖고 있는 지적장애인(2급)이다.

1993년 2월 특수학교인 제주영송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재활을 통해 생산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 나고자 ‘춘강장애인근로센터’에 입사한 민규씨는 목공예사업부에서 목공예 제작 기술을 익혀 지난 15년 동안 한 사람의 기능인으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충실히 생활하고 있다. 현재는 복사용지 사업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장애극복상을 수상한 양민규씨(사진 왼쪽)가 동료와 종이를 옮기고 있다.

희망을 일구고 있다.

춘강장애인근로센터 김남근 과장은 “민규씨는 춘강장애인 근로센터 풍물패에서 팀장을 맡는 등 매사에 적극적이며 솔선수범하여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근검절약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친

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민규씨의 얼굴에서 어느 누구 못지않은 행복의 그림자를 보였다.

앞으로 착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또 다른 꿈을 그리고 있는 민규씨의 하루하루가 희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징검다리라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명자 명예기자〉

볼링으로 하나된 韓-日 농아인

제1회 한·일농아친선교류볼링대회 열려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이두범)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농아인의 교류를 확대하고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제1회 한·일농아친선교류볼링대회를 8월 11~12일 우성볼링장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번 대회는 선수 및 임원, 진행요원, 자원봉사자, 수화통역사 등 150 참가한 가운데 개인전, 2인조, 3인조, 국가단체전, 마스터부로 진행됐다.

양국이 해마다 번갈아 대회를 개최하기로 해 제2회 대회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남자 개인전 △1위=카츠미 우에노 △2위=유경욱 △3위=사노미 시바야마

▲여자 개인전 △1위=유키 토요후쿠 △2위=양선영 △3위=히로미 후키노

▲남자 2인조 △1위=오사무 코바야시, 카츠미 우에노 △2위=이동근, 유경욱 △3위=우승재, 이동환

▲여자 2인조 △1위=히로



미 후키노, 유키 토요후쿠 △2위=윤미화, 양선영 △3위=강순복, 김영순

▲남자 3인조 △1위=유경욱, 우승재, 이동근 △2위=사다히고 사카기미, 요시노리 스즈키, 시게미츠 히하라 △3위=오사무 코바야시, 카츠미 우에노, 나옴 시바야마

▲여자 3인조 △1위=히로미 후키노, 토시코 마츠키요, 유키 토요후쿠 △2위=윤미화, 강순복, 양선영 △3위=김영순, 현인자, 황경화

▲남자 마스터부 △1위=유경욱 △2위=오사무 코바야시 △3위=이동근

▲여자 마스터부 △1위=유키 토요후쿠 △2위=양선영 △3위=토시코 마츠키요

소/식/마/당

깨끗한 마을 가꾸기 캠페인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은 8월 5일 아라주공관리사무소(소장 강성구),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 임차인대표위원회(회장 문길성) 등과 함께 깨끗한 마을 가꾸기 및 기초질서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도공무원노조가물로의집서 봉사활동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호)은 8월 16일 가물로의집을 방문해 잡초제거 등 공동작업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대형 스탠드 선풍기 4대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받은 선풍기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생활인들이 시원한 여름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바다캠프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8월 9일 장애인 회원 및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천읍 함덕리 방과제에서 ‘2008 중증장애인 자립생활바다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캠프에서는 장애인 회원을 대상으로 배낚시와 방과제낚시를 비롯해 노래자랑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져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마레앙상블, 제주공생서 위문공연



단국대학교 사회봉사단 ‘아마레앙상블’은 지방순회연주 첫날인 8월 4일 제주공생(이사장 전내영)을 방문, 위문공연을 벌였다.

1999년 창단한 아마레앙상블은 매년 정기 지방순회연주를 통해 문화적 소외계층에게 공연의 즐거움과 기쁨을 전해주고 있다.

혜정원아가의 집 1일 나들이



한국전력 KPS 제주도지부는 8월 12일 혜정원 아가의 집 생활인을 대상으로 1일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아가의 집 생활인들은 한국전력 KPS 직원자녀와 함께 자동차박물관 등을 관람하면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일지역아동센터, 우도섬 기행



아동복지시설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는 8월 22일 제주사랑 섬기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상의 섬 ‘우도’를 다녀왔다.

아동 30여명이 참가한 우도 섬 기행에서는 우도면사무소를 방문해 기념식수를 하고, 산호사 해수욕장 일대 정화활동과 등대관람, 김벌레 동굴 답사, 박물관 견학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펼쳤다.



서장복, 장애아동 가족캠프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8월 8일부터 1박2일 동안 서귀포시전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안덕면 대평리 용왕난드르 마을에서 장애아동가족휴식지원사업인 ‘가족캠프’를 실시했다.

가족캠프에서는 장애아동의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동심과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말잡기, 소라양초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과 가족커플 티셔츠 만들기, 가족협동화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유진재활센터 임해훈련 실시

사회복지법인 유진재활센터(원장 최은미)는 8월 14일 센터 주간보호실 및 단기보호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서 임해훈련을 실시했다.

신원복지재단 '한국 장애인복지 대표브랜드' 비전선포식

신원! 날개를 활짝 펴 비상하다

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이사장 정석왕)은 8월 19일 제주장애인요양원 앞마당에서 그랜드비전 2020년 '한국 장애인복지 대표브랜드' 달성을 목표로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신원이 걸어온 지난 7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고자 개최된 이날 선포식(사진)은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 전략수립팀 발대식, 내가 신원! 가수왕 등 전 직원과 입소 장애인이 함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한마음 공동체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축제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또 법인 산하 시설인 제주장애인요양원과 제주케어하우스는 '비전 2015'를 통해 각각 '중증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의 메카',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케어하우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제주장애인요양원은 현재 입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하여 2015년까지 도내 중증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의 메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제주케어하우스는 개별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장애 정도 및 특성, 욕구에 적합한 케어, 재활, 자립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정석왕 이사장은 "제주장애인요양원, 제주케어하우스의 경영목표 및 가시화된 비전수립을 통해 재도약의 계기를 맞을 것"이라며 "전략수립팀과 함께 앞으로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과 실천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경애 명예기자〉

알/림/마/당

■ 18일 제주대서 절주 필요성 세미나

제주알코올상담센터는 개소 5주년을 맞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과음이 주는 구체적인 피해를 알려 절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과음의 영향과 알코올 의존자의 인지적 치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도내 사회복지기관 및 병원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알코올 의존자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법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문의=064)759-0911.

■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상호)는 자원봉사 활동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2008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는 테이블치료과정, 발마사지과정, 응급처치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교육생 모집은 오는 3일까지이며, 각 과정별로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테이블치료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발마사지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응급처치는 오는 29일부터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교육대에서 실시된다.

문의=064)758-1727.

■ 제14차 한국형 에니어그램 워크숍

제주가족사랑상담소(소장 김명수)는 자아발견 및 성장에 관심있는 도민과 교육·상담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과 다음달 11일 제14차 에니어그램 1·2단계 워크숍을 가족사랑상담소 교육실에서 갖는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에니어그램 검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3단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064-726-3277.

사랑의열매,도교육청 등과협약

제주 사랑의열매(회장 한동휴)는 8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12개 초등학교장을 대상으로 '우리학교 친구는 우리가 돕는다' 연합모금 협약식을, 양성언 교육감과는 '사랑의열매 1계좌 갖기 운동' 협약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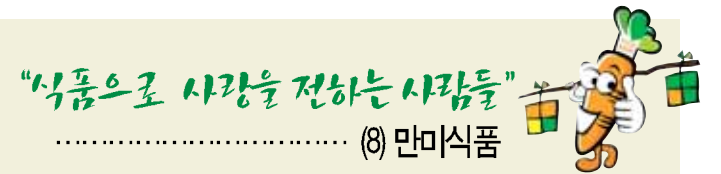
'우리학교 친구는 우리가 돕는다' 연합모금사업은 제주 사랑의열매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2개 학교의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모은 성금을 해당학교의 저소득 학생들에게 급식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랑의열매 1계좌 갖기 운동'은 7월 한달간 교육청 및 산하 사업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접수받아 매월 모아진 성금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빅밴드, 사랑나눔콘서트

제주 빅 밴드(악단장 김용형)는 8월 25일 원광요양원을 방문, 사랑 나눔 콘서트를 갖고 입소 노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작은나눔이 모여큰사랑으로”

처서(處暑)를 지나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며 제주시 애월읍 구업리에 위치한 만미식품(대표 고희철·사진 왼쪽)을 찾았다.

1987년 제주시에서 도토리묵, 메밀묵, 우무묵 등을 생산하다 1992년 구업리에 확장, 이전한 만미식품은 고대표의 부친부터 현재까지 2대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부모님의 나눔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고대표는 지인의 소개 등으로 현재까지 대를 이은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고대표는 “처음에는 나눔을 실천하면서 많은 양을 후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망설이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서

작은 것이 모여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해 납품하는 식품 뿐만 아니라 푸드뱅크에 후원하는 식품의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다.

푸드뱅크 뿐만 아니라 원광요양원과 원광노인재가복지센터에도 후원을 하고 있는 고대표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겠다”며 나눔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또 “현재 푸드뱅크와 같은 후원 사업을 잘 모르는 기업들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푸드뱅크의 취지를 널리 알려 다른 업체들도 푸드뱅크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영민 명예기자〉



월식품기탁자 명단·수량



▲SMC 던킨 도너츠 = 도넛 1만2825개 ▲명당양과(신제주점)=빵 200개 ▲빵 굽는마을=빵 180개 ▲(주)금

강축산유통=육류 120kg ▲(주)서찬문축산=육류 60kg ▲(주)신세게이마트=쌀 및 잡곡류 25개 ▲CJ(주)=양념류 2500개 ▲(주)오뚜기=부식류 3449개

제주 광역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제주평화배 장애인수영대회 8~9일 열려

제2회 제주평화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가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수영연맹 주관으로 8월 8~9일 제주시 실내수영장에서 장애인 수영선수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대회 첫날인 8일에는 이호해 수목장에서 바다수영을 하며 깊은 수심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는 등 인내심을 높이고,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겼다.

9일에는 제주시 실내수영장에서 자유형 50m, 배영 50m, 평영 50m, 접영 50m, 계영 200m 경기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했다.



대구연맹팀 신상덕 씨(39·지체장애)와 부산한마음팀 전명란 씨(30·지체장애)가 남녀 최우수선수상을, 광주연맹팀이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대회가 수상레저스포츠 체험도 병행해 치러짐으로서 기록경기 및 여가활동을 겸비한 대회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칼럼

매미의 생존 전략



고 현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미국 중서부에는 17년 주기로 성충이 되는 매미가 있다. 이를 ‘17년 매미’라 하는데 수십억 마리의 매미떼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 소음이 대단하다고 한다. 또 미국 남부엔 13년을 주기로 성충이 되는 ‘13년 매미’와 7년 주기로 성충이 되는 ‘7년 매미’가 있어 그 지역 사람들은 매미가 어떤 해에 나오는지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 단 일년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해에 나온다고 하니 그 또한 신통하다.

영리마인드 없는시설 퇴출

7년 매미, 13년 매미, 17년 매미. 신기하게도 이들 매미가 나오는 시점은 모두 소수이다. 소수(素數)란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지는 수’를 뜻한다. 왜 소수에 매미가 나타날까.

이유는 간단하다. 소수를 주기로 성충이 되면 천적과 대면할 상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매미의 주기가 17년이고 천적의 주기가 3년이라면 51년이 되어야 매미와 천적이 만날 수 있다. 반대로 소수가 아닌 4나 12년의 주기를 택하면 매미는 천적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 내용은 시즈오카 대학 교수로 있는 요시무라 진의 ‘소수 매미의 수수께끼’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다. 매미가 7년, 13년, 17년 주기로 세상에 나온다는 점을 착안하여 매미가 왜 소수의 시점에서 성충이 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힌 것이다. 결국 매미는 소수라는 원리를 통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매미 나름의 ‘생존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매미의 생존 전략을 보다보면 제주도정의 요즈음 처사가 머리에 스친다. 서울의 일이지만 보궐 선거로 당선된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학교를 설치하겠다고 하니 설명회 자리에 강남학부모가 총출동하고 그 열기가 거세였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 전역이 영어필승의 광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제주도에서도 영리학교 설립에 몰두하고 있다. “영어학교를 선점하여야 제주의 미래가 있다”는 찬성논리와 “공

교육이 무너지고 정부정책의 실험장이 된다”는 반대논리가 매일 부딪치고 있다. 한 달여 전 국내 영리병원 도입여부를 두고 도민들간 많은 갈등과 상처를 남겨놓더니 이제 영리학교가 쟁점이 되어 도민사회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시대 생존전략 필요

특별자치 무용론이 나오고, 오히려 대한민국 1% 인구한계가 이전보다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는 지금, 제주도는 영리학교설치가 1% 한계를 극복할 생존전략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눈을 우리에게 돌려 본다면 복지현장에도 영리목적의 복지사업체 출현도 멀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복지시설도 영리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퇴출되어진다는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다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한국사회를 거세게 덮고 있다. 제주도의 생존전략은 무엇일까.

기본바탕이 온정(溫情)주의자들인 복지동지들의 생존전략은, 큰비는 피하라고 했는데 피할 재간을 찾지 못해 답답한 마당에, ‘매미의 생존 전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만하다고 하겠다.

시론

교육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교육을 두고 백년이라는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배워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권력이나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판국이 아닌가. 이러한 환경

은 백년, 아니 1년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기는 커녕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성적을 요령 있게 획득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교육계 현실은 성실하게 하나씩 계단을 밟는 식의 공부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에게 학습에 대한 요령이 없다는니, 그렇게 현실을 몰라서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등의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지 않는가? 흔들리는 교육환경을 이대로 둘 것인가?

인생 첫단계 ‘무릎학교’ 제자리찾아야

필자는 교육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이에 대한 박식한 견해 또한 없지만,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길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과제라는 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념 하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첫 단계인 가정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육환경이다. 가정에서 인간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자녀에게 나쁜 것은 감추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가? 그것이 자녀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서 이들이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결정을 통하여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것이 이들을 세상에 만들어 낸 부모의 첫 번째 임무이자 중요한 책임이다. 가정환경이 좋지 못하여, 먹고살기 바빠서, 혹은 가정보다 더 질 높은 교육환경을 남들보다 먼저 경험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아이를 교육기관에 좀 더 빨리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무릎학교’를 두고 아이가 인생의 첫 단계에서 질 높은 교육을 어느 곳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둘째, 공교육기관에서 첫 단계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처우를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의 교수들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즉, 지금의 학위와 경력, 지위 등을 고려한 대우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처우를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 단계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교육의 단계를 거듭하여 올라갈수록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몫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탐구하고 터득하고 펼쳐나갈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학력, 지역, 성, 종교 등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 재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이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를 자신의 일처럼 존중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발전을 꾀하려고 변화를 시도하려는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다. 그러니 사돈이 땅을 사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고

청소년들의 푸른 성장, 그 빛나는 성장을 위하여



성 현 숙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청소년심리학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스탠리 홀은 청소년시기를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표현하였는데 질풍노도란 매서운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이라는 뜻으로 자아형성이 불완전한 격동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슬퍼지며 우울하거나 생각에 잠기는 일도 많아지는 시기로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서게 된다. 청소년은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의 갈등, 소외, 외로움, 혼돈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긴장과 혼란의 시기며, 또한

청소년기를 ‘새로운 탄생’으로 보았는데, 청소년기에 보다 높은 수준과 완전한 인간 특성이 새로이 탄생하는 시기이다.

이렇듯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푸른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제주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잠재되어 있는 ‘끼(내부적인 힘)’를 발굴하고 있다. 그 ‘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하면서도 쾌적하고 이용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치 및 지역사회연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지원과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여 상반기 동안 제주지역 도보여행인 ‘놀멍, 쉬멍, 걸으멍’과 ‘청소년 상설 문화마당’ 등의 24개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시설별로 기획, 제공하여 올 한해 6300여명의 청

소년들이 참여하여 그들 또래끼리의 재미와 즐거움과 공공성을 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소년 지도사의 도움 속에서 체험하였다.

또래집단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 동아리 연합축제를 기획,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동아리 축제를 9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듯 제주시민의 23%를 차지하는 미래동력인 청소년들의 푸른 성장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인 시책들이 질풍노도의 시대에 속한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빛나는 성장에 어울려지는지 심사숙고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쉽게 다가서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청소년 푸른 성장에 빛을 주어 차세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되기를 희망해 본다.



노인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등에 관한 보고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체계 확충 시급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은 최근 제주지역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유지·증진을 위해 보건 의료서비스의 방안을 제시,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주지역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와 서

비스 요구도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본지는 제주도 인력개발원이 지난 4월 9일부터 29일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 5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펴낸 연구보고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9명이 만성퇴행성 질환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못하고 있는 노인이 많다는 것이다. 이어 '농사일로 시간이 없어서'(21.3%),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서'(7.9%), '거리가 멀어서'(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 임신과 출산에 의해 신체가 많이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요양이나 휴식을 취하지 않고 농사일을 거들면서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들이 평소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지역 병·의원' 55.4%, '종합병원' 22.9%, '보건기관' 7.9%, '내도시 병·의원' 5.9%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의료기관 가운데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적은 것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 '너무 오래 기다린다', '직원 불친절', '대기실이 좁다' 등의 이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기관이 주역 주민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보완하고 치료 중심의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적인 관계보다는 공공기관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기관의 가정 방문 횟수와 희망 횟수를 보면 전체의 67.5%가 보건기관에서 가정방문을 오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58.2%가 가정방문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운 점은 '치료비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수단' 15.5%, '치료 효과'

6.1%, '불친절' 1.7%였다.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노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 상태에 따라 보건교육을 통한 자기관리와 게이트볼, 석궁, 수영, 요가, 체조, 장수춤 등 운동요법을 교육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또 운동요법 교육을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에 운동지도자를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 없으므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시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러한 노인들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산망 구축을 통한 노인의 관리체계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보건 의료정책이 수립돼야 하며 보건기관의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연구보고서는 지적했다.

노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의사, 간호사 등 건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협력하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 만성퇴행성 질환 앓아 고혈압·관절염·당뇨병 순·15.3% '치료비 부담'

제주도 인력개발원이 발간한 '제주지역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와 서비스 요구도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89.7%의 노인이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혈압(31.1%)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관절염(23.1%), 당뇨병(10.3%), 심장질환(6.5%), 골다공증(6.3%) 순으로 나타났다.

만성퇴행성 질환 노인 가운데 15.3%는 치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조금 참으면 나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38.2%로 가장 많았고 '돈이 없어서'도 23.6%에 달했다. 병을 앓고 있음에도 곧 나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냥 참고 견디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생활비 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는 '의료비'라는 응답자가 42.7%로 가장 많았고 식비 23.8%, 공과금 9.5%, 주거비 9.3%, 경조·교제비 5.7%, 교통비 4.1% 등이었다.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건강 문제'가 역시 1위를 차지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는 '자녀 및 며느리'가 57.8%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의 43.3%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 상태에 대해 항상 걱정한다'는 응답도 남자 노인들에 비해 여성 노인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에 취약하

혼자 사는 노인 29.9%...복지시책 강화 필요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절실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만성질환 노인은 정기검진과 주사, 투약 등의 관리교육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자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전체의 29.9%를 차지하는 만큼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가족이 제대로 보살펴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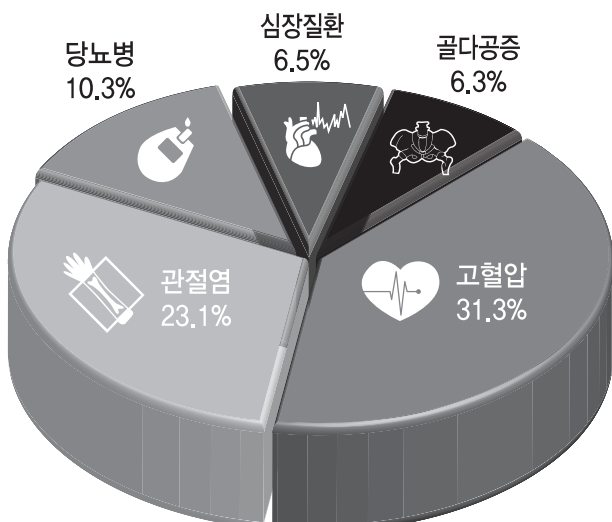
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또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노인병을 예방, 진단, 치료·관리할 수 있는 전문의와 노인전문 간호사 등을 배치하고 전문인력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지위보장과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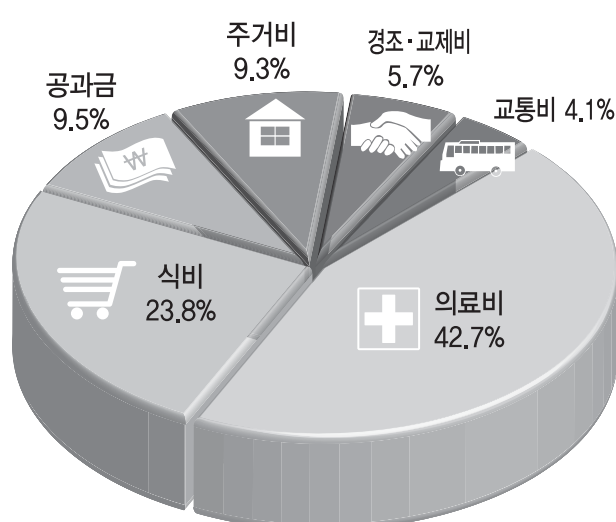
아울러 보건소가 이 모든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지역 병·의원 중 일부 병원에 노인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 또는 노인전문병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도 주문했다.

연구보고서는 방문간호사업과 관련해 전문 인력 부족과 과다한 업무 등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방문간호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간호, 건강상담, 보건교육, 간단한 검사, 운동요법 지도, 영양지도 등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은?



▲ 노인이 지출하는 분야는?

Happy Jeju

나눔과 실천으로
따뜻한 제주를!

제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08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

2008년 9월 5일(금) 오전 11시 ~오후 4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지 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참여기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교수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도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제주지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제주지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제주지부